李退溪의 ≪心經附註≫**

佐　藤　仁*

Ⅰ. 序　論

퇴계학의 특색을 밝히려고 할 때 유효한 방법의 하나는, 퇴계가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형성해 갈 때에 그 기반이 된 典籍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그것을 퇴계가 어떻게 수용했느냐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다. 퇴계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전적에는 ≪論語≫를 비롯하여, 특히 宋·元·明시대의 신유학자들의 저작을 주된 것으로 열거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 ≪朱子文集大典≫ 중의 朱子의 書簡들, 퇴계의 이른바 ≪朱子書≫인데, 이 ≪朱子書≫의 존재를 알기 훨씬 이전부터 퇴계가 心醉하고 있었던 책에 ≪心經附註≫가 있다. 본론에서는 특히 이 ≪心經附註≫와 퇴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퇴계학의 一端을 해명해 보기로 한다.

Ⅱ.

南宋의 眞西山(1178~1235, 名은 德秀, 字는 希元·景元, 西山은 그의 號)이 편찬한 것에 ≪心經≫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서경≫ 大

* 久留米대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68호(1990) 게재논문

禹謨의 ≪人心惟危道心惟微章≫을 필두로 ≪詩≫, ≪易≫, ≪論語≫, ≪中庸≫, ≪大學≫, ≪樂記≫, ≪孟子≫ 등의 유학의 고전과 여기에 근세의 朱子·程子·范子·朱子의 저술 가운데에서 心學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言說 37조를 발췌하고 더 나아가 程朱와 그 외의 의논을 보주의 형태로 부가한 것이다. 그러나 후일, 특히 보주의 부분에 不備점이 있다고 하여 明初의 程篁墩(1445~?, 名은 敏政, 字는 克謹, 篁墩은 그의 號)이 이를 증보한 것이 다름 아닌 ≪心經附註≫이다. ≪心經≫이나 ≪心經附註≫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持敬의 工夫에 의한 道心의 함양과 人心을 제어하는 것이 주제로 되어 있고, 說理講學을 논하는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책을 읽는 독자 자신의 治心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찬된 책이다.

퇴계는 이 ≪心經附註≫를 神明嚴父와 같이 존신했다. 이처럼 된 배경에는 퇴계가 살았던 당시의 조선왕조의 정치적·문화적 환경과 퇴계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자질·성향등,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으나, 어쨌든 심학은 오랜 전통을 지닌 유서 있는 바른 학문이며, 또한 그 내용이 아주 정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책이 다름 아닌 ≪心經附註≫였기 때문이며 퇴계는 이 ≪心經附註≫에 촉발되어 심학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心經附註≫을 존신하는 마음을 퇴계는 평생 버린 일이 없었다. 이것은 퇴계敎學에 있어서 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퇴계가 ≪心經附註≫의 존재를 처음으로 안 것은 비교적 젊은 시기로,[1] ≪年譜≫에 의하면 中宗 28년 퇴계 33세[2]때의 일이다. 퇴계가 ≪朱子文集≫의 존재를 안 것은 43세 때의 일이므로,[3] 이보다도 10년 정도 빠른 셈이 된다.

---

1) ≪退陶先生言行通錄≫ 권2, 李德弘條.
2) 이 문제에 대한 고증은 友技龍太郎著, ≪李退溪≫其の生涯と思想, 제1장 <退溪의 생애> 및 제3절 <結婚·遊學·科擧>條에 자세함.
3) 退溪自撰 <朱子書節要序>.

주자학파에서는 후진을 지도함에 있어서 ≪小學≫, ≪四書集註≫, ≪同或問≫, ≪近思錄≫ 그리고 ≪太極圖說≫, ≪西銘≫등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퇴계도 물론 이들 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으나, 무엇보다도 심학의 書인 ≪心經≫과 그 ≪附註≫를 중시한 곳에 퇴계敎學의 특색이 있었다.

≪退溪全書≫를 통독하면 ≪心經≫과 그 ≪附註≫에 대하여 언급한 곳이 많이 보이는 데, 특히 제자들과 質疑應答한 서간문중에 많다. 그 가운데서 취급되고 있는 문제는 사상 내용에 관한 문제로부터 자료를 읽는 법, 字句의 해석이나 誤字의 정정, 더 나아가 ≪心經附註≫ 조선 간본의 교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내용을 逐一검토함에 의해서 퇴계와 門제자가 ≪心經附註≫에 기울였던 관심의 깊이를 엿볼 수 있으며, 이 점은 동아시아 사상계에 있어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 중국과 일본을 두루 살펴보아도 퇴계 문하에 필적할 만한 경의와 관심을 이 ≪心經附註≫에 기울였던 학자는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4]

Ⅲ.

퇴계는 이 ≪心經附註≫를 한평생 神明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듯이 존신했다. 그런데 퇴계에게 있어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皇明通紀≫를 읽은 弟子 趙士敬의 보고에 의해서 퇴계가 이 책

4) ≪心經附註≫은 新儒學思想이 朱子學에서 陽明學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도기의 산물이며, 陽明心學이 성립됨과 동시에 역사적 역할을 끝내고, 그 후 중국의 사상계에서는 거의 돌이켜 보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2번에 걸쳐서 간행된 것에 비하여는 애독자는 별로 없었던 듯 하다. 그 뿐만 아니라 퇴계와 그의 학문을 그처럼 존경했던 山崎闇齋까지도, 퇴계가 ≪心經附註≫을 존신한 것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阿部吉雄著 ≪日本朱子學と朝鮮≫254頁 참조), 佐藤直方도 佛見에 가깝다(≪韞藏錄≫續拾遺, 권1)고 비판하고 있다.

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경의와 신뢰를 배신하는 듯한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程篁墩이 시험문제를 누설해서 부당한 이익을 손에 넣었다는 불상사를 저지른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에 얽매여 程篁墩이 평생 세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脫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었던 일, 그리고 끝으로 程篁墩의 학문에 관한 일로서, 그의 著 ≪道一編≫이 陳淸瀾으로부터 「陸學을 옹호하기 위하여 朱陸二家가 말한 언론의 연대를 제멋대로 顚倒시켜, 이에 의해, 朱子는 早年에 象山을 의심했으나, 만년에는 그 非를 깨닫고 상산의 설을 동조했다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말로 후학을 誤導하고 있는데 그 죄는 크다」[5]고 엄격하게 비판받고 있다는 세 가지 사실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이 ≪心經附註≫을 神明嚴父와 같이 존신해온 퇴계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제3의 사실은, 陸王學을 禪이라고 엄하게 질책하고 異端視하는 朱子학자로서의 퇴계의 입장과 ≪心經附註≫를 神明嚴父와 같이 존신해온 입장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수개월에 걸친 煩悶 끝에 이 문제에 매듭을 지으려고 작성한 것이 다름 아닌 ≪心經後論≫이며, 제1의 사실에 대해서는 程篁墩에게 악의를 가진 정적이 꾸며낸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제2의 사실에 관해서는 제1의 사실과 관련지어 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그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고 애쓰고 있다. 제3의 사실에 대해서는 ≪道一編≫과 ≪心經附註≫와의 사이에는 그 내용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道一編≫의 저자라고 해서 ≪心經附註≫까지 깎아 내릴 이유는 없다고 한다.[6]

요컨대 ≪心經≫은 성현의 大訓을 모은 것이며, ≪附註≫는 周·程·

---

5) 陳淸瀾著 ≪學蔀通辯≫卷首提綱. 그러나 ≪退溪文集≫ 권21, 答李剛而別紙에 의하면 ≪道一編≫의 존재와 이를 비판한 ≪學蔀通辯≫의 議論은, ≪皇明通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퇴계는 이때 ≪道一編≫과 ≪學蔀通辯≫의 二書를 아직 읽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6) <心經後論>외에, ≪退溪文集≫권21, 答李剛而別紙. 同 권23, 與趙士敬 등에도 거의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張·朱의 설을 위시하여 그 이후의 제현의 설을 아울러 합하여 만든 것으로, 그 어느 것도 至言이 아닌 것이 없다.[7] 따라서 程篁墩의 인품과 학문에 다소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心經附註≫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大訓 至言의 권위마저 손상시킬 수는 없다고 하고, 또한 ≪心經附註≫편찬의 목적도, 朱陸折衷에 있어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인 ≪朱子尊德性齋銘章≫의 ≪附註≫ 가운데 陸象山의 말이 한마디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8] 朱陸折衷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오로지 강설 쪽만 중시하고 함양 쪽을 放棄해 버려 언어 문자의 고루함에 빠져 버린 朱子末學의 폐단을 구제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퇴계의 결론이었다.

Ⅳ.

이상은 程篁墩의 인품과 학문에 관한 疑義와 이에 대한 퇴계의 해답이었으나, ≪心經附註≫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의 사상 내용에 직접 관계있는 疑義로서는 眞西山의 <心經贊>에 관한 疑義, 程林隱의 <心經圖>에 관한 疑義, 王魯齋의 <人心道心圖說>에 관한 疑義, <心箴>의 저자인 范蘭溪의 심설에 관한 疑義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우선 ≪心經贊≫에 관한 疑義로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 하나는 趙士敬이 제출한 것으로, 西山은 '道心惟微'의 '微'에 대해서 「理에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微라고 이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道心惟微'

7) 그러나 예외적으로 <乾九二閑邪存誠章>, <存子尊德性齋銘章>의 ≪附註≫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元儒 吳草廬(1249~1333, 名은 澄)의 말에 관해서는 佛學의 臭氣가 느껴진다고 하여 비판하고 있다. ≪退溪文集≫ 권12, 答崔見叔. 동권 33. 答許美叔問目. 同 권41, <心經後論>.

8) 이것은 陸象山의 말이 ≪心經附註≫가운데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심경부주≫권4 「鷄鳴而起章」≪附註≫에는, 象山이 朱子의 요청으로 南康의 白鹿洞書院에서 행한 유명한 <論語講義> 一文이 수록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의 道心은, 일단 心이라고 한 이상은 心(마음)이 발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의 顯微를 말할 리는 없다. 따라서 西山이 「이에 형체가 없으므로, 이를 微라 이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냐고, 이에 대해서 퇴계는 ≪퇴계文集≫卷23, 答趙士敬別紙에서 「西山의 말은 실수라고 인정할 수 없다」[9]라고 응수하고 있다.

이 ≪心經贊≫에 관한 疑義의 다른 하나는 李宏仲이 제출한 것이다. 「道心伊何, 而日根於性命, 曰義, 曰仁, 曰中, 曰正」이라는 일절에 관한 것으로 「의가 인의 앞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 周濂溪의 ≪太極圖說≫에는 「中正仁義」 내지는 「仁義中正」이라고 되어 있는데, ≪心經贊≫에는 「義仁中正」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의 李宏仲의 질문은 ≪心經贊≫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太極圖說≫의 「中正仁義」에 관한 議論으로 전개되고 있다. ≪퇴계文集≫ 권35 答李宏仲問目[10]에 있는 퇴계의 회답의 전반부에는 强辯하고 있는 듯한 곳도 없지는 않으나, 퇴계가 후반부에서 압운의 관계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正解에 가깝다 할 것이다.

≪心經贊≫에 관한 疑義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附註≫ 卷首에 게재되어 있는 元儒 程林隱(名은 復心, 字는 子見, 林隱은 그의 號)의 ≪心學圖≫에 관한 疑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9) "心經贊惟理無形一語, 舊未見有可疑. 今如此致疑. 儘看得細密. 蓋舜之本語道心惟微. 旣謂之心, 則乃指心之發用處言, 非指理之顯微而言. 西山以是爲言, 似非本義. 然其上文, 已明言人心伊何, 而曰根於性命, 曰仁義中正, 而後係之以此言. 其意謂, 道心之所以微妙難明, 以性命之理無形象可見故也. 其言有漸次脉絡, 與靜庵之見固不同矣. 來喩亦已見得此意矣. 但其下乃復, 謂西山下語偶失照管, 則又非矣. 蓋西山語非失矣."

10) "凡言有由本, 而至末者, 有由用而達體者. 此則由用達體之語. 或又疑, 偶然取文字便於讀耳."

V.

퇴계는 ≪心經附註≫를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부터, 그 권수에 실려 있는 <心學圖>에 대하여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程林隱作으로, ≪四書章圖≫ 卷中 해설까지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안 것은 아주 훗일의 일인 것 같다.[1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心學圖> 및 說은 훗일 퇴계의 대표작인 ≪聖學十圖≫에 제8圖로 수록되게 된다. 그런만큼 이 도는 퇴계심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程林隱의 ≪四書章圖≫ 全3권은, 퇴계 애독서중의 하나였으며, ≪聖學十圖≫ 第六心統性情圖중 上圖 및 說도, 이 ≪四書章圖≫에서의 인용이며, <心學圖>와 함께 퇴계心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퇴계가 이 <心學圖>를 현창한 것을 계기로,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평가를 둘러싸고 퇴계와 栗谷, 퇴계와 문인인 趙士敬과의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일어났다.[12] 이 의논을 통해서 퇴계가 이 <心學圖>와 <說>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그 一端을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心學圖> 상단에 心圈의 주위에 배치되어 있는 여섯 개의 心, 즉 「本心」 (≪孟子 ≫告子章句上, 魚我所欲也章) 「良心」(同 牛山之木章) 「赤子之心」 (同離婁章句上, 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章) 「大人之心」(同前) 「人心」 (≪書經≫ 大禹謨) 「道心」(同前)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第一의 문제였다. 퇴계는 이것은 一身의 主宰인 心의 諸相을, 공부의 문제와는 일단 분리시켜 도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栗谷은, 이 중의 「大人之心」은 성인의 마음으로, ≪心學圖≫ 하단의 「從心」 「不動心」과 同類의 것. 또한 「本心」은 愚者에게도 있으나,

11) ≪退溪文集≫권14, 答李叔獻, 同 권23, 答趙士敬別紙.
12) ≪退溪文集≫권14, 答李叔獻, ≪栗谷全書≫권9, 上退溪先生問目. ≪退溪文集≫ 권23, 答趙士敬 등 참조.

8

「大人之心」은 수양을 극진히 한 결과 얻어진 것으로, 인간에게 원래부터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퇴계의 說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서 퇴계는 한마디로 마음이라고 해도 그것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호칭이 달라지게 된다. 「本心」은 本有의 善을, 「良心」은 本然의 善을, 「赤子之心」은 純一無僞인 것을, 「大人之心」은 純一無僞하면서도 능히 萬變에 통달하는 것임을, 「人心」은 形氣에서 생긴 경우를, 「道心」은 性命에 근원하는 경우를 각기 가리키고 있어서, 공부의 문제는 인심도심이 생긴 이후의 精(擇善)一(固執)에서 시작된다고 반론하고 있다.

다음 하단인데, 이는 一心의 주재인 敬공부의 諸相을 도시한 것으로, 오른 쪽 반의 「愼獨」「克復」「心在」「求放心」「正心」「四十不動心」의 여섯은, 상단의 인심을 받아서, 인욕을 끊어 버리기 위한 공부와 그 효험을, 왼쪽 반의 「戒懼」「操存」「心思」「養心」「盡心」「七十而從心」의 여섯은, 상단의 「도심」을 받아서,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와 그 효험을 제각기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栗谷은 인욕을 끊는 공부와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를 兩邊으로 나누는 것도 이상한 터에, 「愼獨」「克復」「心在」다음에 「求放心」을 놓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말해, 결론적으로 <心學圖>는 틀린 곳이 많고 조잡한 책이라고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다.

<心學圖>중의 각 사항의 上과 下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趙士敬도 문제삼고 있다. 즉 상위에 있는 것은 초보적인 공부로, 하위에 있는 것일수록 고차적인 공부로 된다고 할 경우, 예를 들어 「養心」을 「心思」 뒤에 놓기도 하고, 「求放心」을 「愼獨」「克復」「心在」다음에 놓기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 의문 가운데 다만 「心在」과 「求放心」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퇴계 자신도 마음에 걸린 탓인지[13] 「心在」와 「求放心」만은 양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말하고 있다. 퇴계는 「求放心」이던 「養心」이던간에 이것들은 반드시 초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공부는 아니라고 한다. 「養心」에 대해서는 朱子의 ≪養心亭記≫에 있는 것처럼, 성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니며, 반드시 마음을 함양하므로써 도달하는 것이다. 程林隱의 이른바 「養心」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부의 초기 단계에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로써 유추해 보면 「求放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만약 초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공부라면, 孟子는 「학문의 시작은 마땅히 방심을 거두어들임에 있다.」라고 말했을 터인데, 그러나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오직 방심을 거두어들임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求放心」

13) ≪退溪文集≫권23, 答趙士敬 제37書.

의 공부는 초학자에게만 요구되는 공부는 아니고 대현이라고 일컬어지는 顔子에게도 해당되는 공부라고.[14]

<心學圖>에 있어서의 각 사항의 상하 좌우의 위치 관계는, 圖를 작성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例를 들면 ≪大學≫의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의 순서에서 보는 것 같은 엄격한 선후 관계를 염두에 두고 배열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성현이 논하고 있는 心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 一部分만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전체를 알고 그 전부에 걸쳐서 수양을 수행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정림은의 ≪心學圖≫도 실은 이를 밝히려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퇴계의 결론이었다.[15]

VI.

다음에「人心道心章」≪附註≫에 수록되어 있는 <人心道心圖>와 그 ≪說≫에 대해 말하면, 인심도심 문제는 심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동시에 鄭秋巒 원작의 ≪天命圖≫를 개정하기도 하고, ≪성학십도≫를 작성해서 幼主 宣祖에게 헌상하기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경우, 도표가 아주 유효한 수단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퇴계이므로, 당연히 퇴계는 이 ≪人心道心章≫에도 강한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圖>와 <說>은 그 됨됨이 그다지 신통치 못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여기에 퇴계는 어떻게 해서든 의미가 통하도록 몇 번인가 圖의 改定을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 마음에 흡족한 것은 만들 수 없었던 것 같다.[16]

다음 ≪心經≫ 권4에 수록되어 있는 范蘭溪의 ≪心箴≫인데, 이 ≪心

14) ≪退溪文集≫권23, 答趙士敬 참조.
15) ≪退溪文集≫권14, 答李叔獻.
16) ≪退溪文集≫ 권14, 答李叔獻問目, 同 권23, 答趙士敬.

箴≫은 朱子가 ≪孟子集注≫ 告子章句上에 채택했기 때문에 일약 유명해진 것이다. 형체상으로는 지극히 미소한 인간이, 한편에서는 천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삼재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실은 心에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러므로써 心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상은, 心을 일신의 주재라고 하는 사상과 함께 宋明시대 유학자가 심학을 중시하는 최대의 이유였으며, 朱子가 젊은 시절에 지은 <存齋記>[17]에도 보이며, 또한 元의 許魯齋의 ≪心法≫이나 程篁墩의 ≪心經附註≫서문 중에도 표명되어 있다. 퇴계심학도 이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心箴≫이 퇴계 문하의 중요한 교과서였던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

이 ≪心箴≫이외에도 范蘭溪의 저작으로서 ≪心經附註≫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권2 「大學誠意章」에 ≪愼獨齋記≫, 권3 「孟子牛山之木章」에 ≪存心齋記≫가 있다. 그 중 특히 퇴계 문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存心齋記≫로, 문인 崔見叔이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18]

程朱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動靜相對의 상을 초월한 곳에 지정한 것을 구해서 그것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佛老의 異端사상이다. 이에 대해서 정주학자는 어디까지나 마음을 一動一靜의 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마음의 체용을 보려고 했다. 퇴계가 崔見叔의 의의에 찬의를 표하고 范蘭溪의 심설을 비판한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存心齋記≫중의 范蘭溪의 심설에 불노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心箴≫도 당연히 문제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과연 「心箴章」의 ≪附註≫에서는 불교의 관심설에 「求心之病」[19]이 있다고 비판했던 朱子의 「觀心說」[20]을 수록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불노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

17) ≪朱子文集≫ 권77.
18) ≪退溪文集≫ 권12, 答崔見叔問目.
19) 朱子는 佛敎心學에는 「求心의 病」이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張橫浦, 謝上蔡와 그의 영향하에 있었던 湖南學派, 象山학파의 학문에도 거의 같은 경향이 있다고 하고, 이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서 비판하고 있다. 퇴계에게도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說」을 비판하는 자료가 ≪退溪文集≫권37, 答李平叔에 있다.
20) ≪朱子文集≫ 권67.

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퇴계 문하에는 范蘭溪에 관한 한, ≪存心齋記≫중의 일문에 대한 비판에 그쳐서, 范蘭溪의 심설에 관한 그 이 이상의 깊이 파고드는 의논은 없었다.

이상 퇴계의 心學과 표리를 이루는 퇴계의 心說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타일을 기하기로 한다.

(박 양 자 譯)